

사랑의열매

ISSUE **150**
2019 OCTOBER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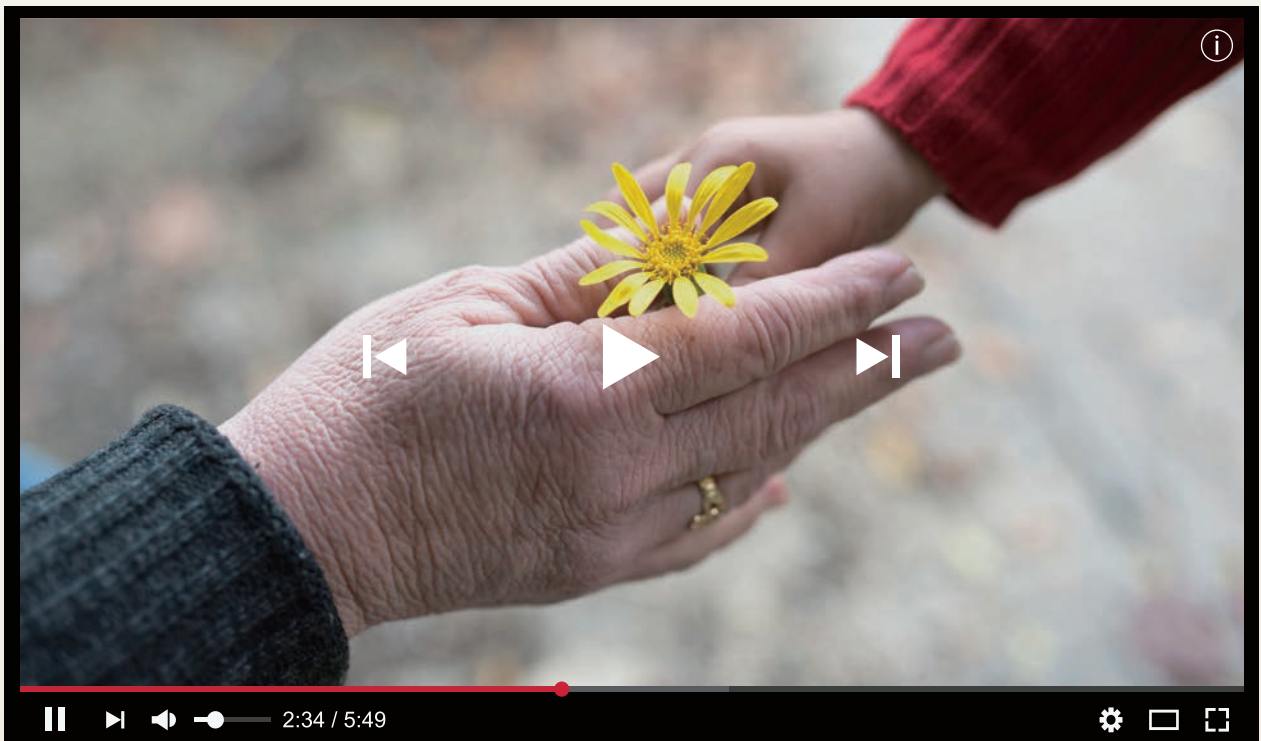
당신은 여전히 낭랑 18세
사랑의열매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위해
세 번째 기부 이어가는
방송인 박재민







누구나,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10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지요. 사랑의열매는 시니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 교육부터 의사소통 노하우 교육 등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하며, 일자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



우연히 들어가
알차게 체험하고
나눔에 대해 공부함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어린이
이체험#방학에갈만한곳

나눔
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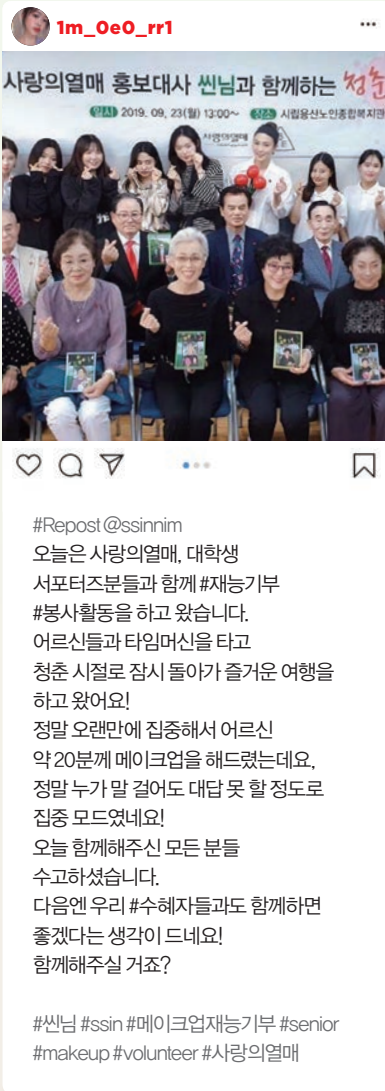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Repost@ssinnim
오늘은 사랑의열매, 대학생
서포터즈분들과 함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타임머신을 타고
청춘 시절로 잠시 돌아가 즐거운 여행을
하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어르신
약 20분께 메이크업을 해드렸는데,
정말 누가 말 걸어도 대답 못 할 정도로
집중 모드였네요!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우리 #수혜자들과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해주실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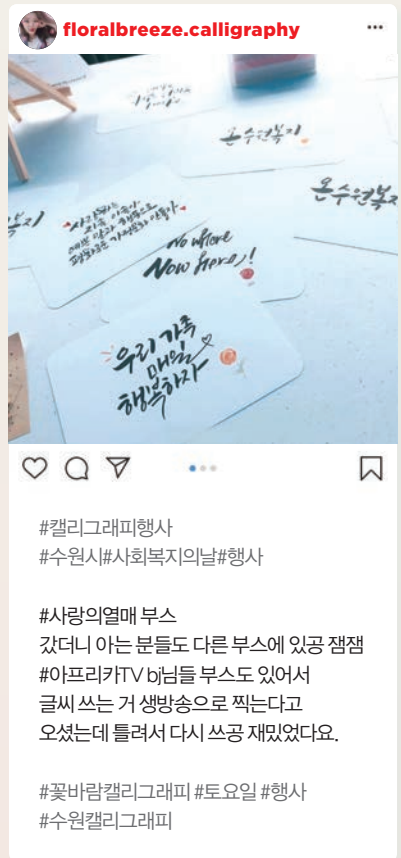
#쌤님 #ssin #메이크업재능기부 #senior
#makeup #volunteer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삼성나눔워킹
#소윤이#똥똥한손



기부
꼬맹이들 따뜻한 명절 되길



#캘리그래피행사
#수원시#사회복지의날#행사

#사랑의열매 부스
갓더니 아는 분들도 다른 부스에 인공 찜찜
#아프리카TV b님들 부스도 있어서
글씨 쓰는 거 생방송으로 찍는다고
오셨는데 틀려서 다시 쓰공 재밌었다고.

#꽃바람캘리그래피 #토요일 #행사
#수원캘리그래피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50 2019 / 10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10월 / 통권 15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 인생 2막을 당당하고 즐겁게

사랑의열매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PART 1 배우기 딱 좋은 나이에 하는 세상 공부

PART 2 신나는 新노년 문화를 만드는 중

PART 3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10 커버스토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위해
세 번째 기부 이어가는 방송인 박재민

14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초허당후원기금 일꾼 권오춘 아너

18 현장 스케치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촬영장에서 만난
멋진 카리스마의 배우 전해진

20 이슈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설명회

22 나눔 현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쌤님과 함께하는 '청춘사진관'





24 나눔문화 활성화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26 땡큐 사랑의열매

동광임파워먼트센터

30 취준 프로그램

취준생을 위한 심리 안정 취업 캠프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3기 현장

32 2019 찾아가는 회계지원단

어디든 달려갑니다~

34 착한일터

이천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 착한일터 가입

36 마음 책방

너의 잘못이 아니다

38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올해에도 아낌없이 주는감~

40 힐링 타임

전문가가 말하는 홈 케어 노하우

44 지회 소식

54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당신은 여전히 낭랑 18세

사랑의열매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100만 유튜버 스타부터 캣워크를
우아하게 걷는 모델까지 시니어가
달라졌다.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로 사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당당히
가꿔가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여전히 청춘인 그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8일 '2019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 행사에서 교통안전 퀴즈 대회를 진행했다.

PART
1

배우기 딱 좋은 나이에 하는 세상 공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학교는 졸업해도 세상 공부에는 졸업이 없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대신 배우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열공’ 중인 어르신들을 소개한다.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고령자 교통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이다.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전체 보행사망자의 56.6% 차지하고 횡단보도 내 사망자가 전체 보행사망자의 23.1%를 차지하는 등 고령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6년부터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다.

올해는 전국 38개 노인복지관에서 안전 보행 교육과 안전 운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베테랑 교실에 참여한 어르신은 시니어 교통안전 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통해 교통 취약 지역 모니터링 등 나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MINI INTERVIEW

2019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 최종 우승자
충주시노인복지관 송석준 님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 참여하기 전까진 솔직히 안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교육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참여했지요. 운 좋게 골든벨 우승까지 해서 얼떨떨하고, 한편으로 우승 자격이 있나 싶어 부끄럽기도 해요. 골든벨에 나가기까지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준 덕이 아닌가 싶어요. 안전교육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수록 또 알수록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ICT 치매예방지도사 양성 중 마커펜을 활용한 코딩 로봇 교육을 받고 있다.

단순히 교육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 형식의 교통 안전 퀴즈 대회인 '시니어交通安全 골든벨'을 개최해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9월 18일 전국 38개 복지관에서 온 참가자를 비롯해 실무자 등 약 450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골든벨이 열렸다.交通安全 퀴즈를 푸는 것 외에도交通安全송 부르기,交通安全 정책 콘텐츠 공모전 당선자 발표, 안전 보행 수칙 선포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안전한 시니어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ICT 활용 치매 예방 프로그램

KT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 활용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 교육이나 활동 위주의 기존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달리 코딩

로봇,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체험하며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돕는다. 참여자에게 생소한 분야이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80%가 넘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과 강의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 ICT 치매예방지도사 양성 교육을 8회 진행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료자 중 현재 12명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양상블을 배우고 재능 기부까지 하는 '음악대장 시니어 밸런트'

서울 성북구 거주 노인의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와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음악 심화 학습 프로그램으로,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상월곡실버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악기를 다루는 교육이 아니다. 합창, 오카리나,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합주를 통해 양상블을 이루고, 문화 공연을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활동까지 한다. 음악 공연을 통해 재능 기부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까지 진행하며, 모두들 진지하게 사회 공헌 활동에 임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8월의 크리스마스', 음악 여행 '안단테 칸타빌레', 1년간 배운 연주를 선보이는 파노라마 졸업 연주회 '상월곡 양상블 다이어리' 등 특별 활동에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다. 작년 졸업 발표회 객석 만족도 점수가 100점 만점 중 98점에 달하는 등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9년 음악 여행 중 통일전망대에서 버스킹을 하는 모습

PART
2

신나는 新노년 문화를 만드는 중

현재 시니어를 위한 문화는 공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노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시니어들이 있다. 라디오 DJ,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어르신들의 서툰 On-line 소통 채널, '어서.오.소'
10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 박막례 할머니 처럼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시니어가 많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할 터. 삼성이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어서오소'는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이다. 은퇴한 어르신 중 영상 제작에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분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촬영 장비, 영상 디자인, 운영 교육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이론 교육을 7회 한 후,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상 촬영 실습과 편집 교육을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직접 채널을 개설하며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여러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주도적 문화 창작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와 수필이 있는 '팟캐스트 라디오'

양지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팟캐스트 라디오'는 전주 지역 시니어의 사회 참여 향상을 위한 IT 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삼성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있다. IT 문화 기초 교

육, 팟캐스트 활용 교육 및 실습을 거쳐 12명의 시니어 DJ가 탄생했다. 시와 수필 낭독에 재능이 있는 사람, 방송과 라디오 녹음에 관심 있는 사람 등 서로 재능을 더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다. 이렇게 녹음한 팟캐스트는 IBS실버방송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선배 DJ가 '팟캐스트 활용 기초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라디오 원고 공모전, 라디오 대본 작성 등 시니어들이 IT 문화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팟캐스트 녹음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 DJ



마을 소식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 진행 우리 마을 함께 '보e소'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은퇴 어르신 20명은 '뉴 시니어 인생교실'을 통해 3월부터 8월까지 스피치 교육, 기자단 교육,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을 거쳐 라디오 방송을 하는 희망 활동가로서 면모를 갖췄다. 5월부터는 홍성군 마을과 어르신의 일상을 다룬 관내 라디오 방송 '보e소 열린 라디오'를 주 1회 직접 진행하며 활동 중이다. 아울러 소외 계층 어르신과 지

역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열린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e소 열린 라디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을 미디어로서,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유토론헬교 '여기이슈(Issue):역(逆)이슈(Issue)' 프로그램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15명이 장·노년층의 관점으로 사회 이슈를 재해석하는 공유 토론 프로그램으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다. 삼성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토론 기술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자기 이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 이슈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여기이슈(Issue) 스터디'를 운영한다.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역(逆)이슈(Issue)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또 지역사회와 견해를 공유하는 '이슈 Talk'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시니어들이 사회 이슈를 재해석하는 공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PART
3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혼자 꼭 눌러 답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쉽게 줄어들지는 아닐 것이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어르신에게는 위로를, 미래 걱정을 하는 어르신에게는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열매의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손자들에게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을 배우는 우행시 참여자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소중한 시간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배우자와 사별해 홀몸이 된 여성 어르신을 위해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여성이 배우자를 잃은 경우 경제적·정서적·건강 상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며 사회 참여율도 낮아진다. '우행.시'를 통해 여성 홀몸 어르신은 다양한 여가 생활을 경험하고, 자원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한 여성은 그룹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슬픔·분노 등 감정을 표출하고 공감하며, 배우자를 잃은 상실을 치유하고, 오감 테라피를 진행하며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 수제 과일청 만들기, 동화 구연 기술 습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해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간다. 지역 내 다른 홀몸 어르신에게 수제 과일청 차 나눔 활동을 하고, 지역 내 어린이



집에서 동화 구연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찾아가는 장수 사진 촬영 봉사 활동 '마사봉'

옛말에 "장수 사진을 찍어두면 장수한다"고 했다. 꼭 그런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훗날 일을 생각해 장수 사진을 찍기 원하는 어르신이 많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사진관으로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담되, 전문성을 갖춘 봉사자가 시설이나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마음을 전하는 사진 봉사단 '마사봉'이 월 1회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GM한마음복지재단의 지정 기탁으로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 촬영, 보정, 인화, 액자 제작까지 해서 198명의 어르신에게 장수 사진을 선물했다. 사진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



마사봉이 찍은 장수 사진을 받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위해

세 번째 기부 이어가는 방송인 박재민

방송인 박재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했다.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박재민은 일제강점기가 불과 100년 전의 일이지만, 이미 많이 잊혀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전쟁 피해자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자.

너무나 친근한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야기를 하는 박재민의 얼굴은 따뜻했다. 인터뷰를 하는데도 마치 할머니가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친근한 어투로 말을 이어갔다.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묻어났다.

“많은 분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게 전 어딘가 불편했어요. 처음엔 다가가기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직접 만나본 할머니들은 너무 귀여우셨어요. 재밌고, 좋은 에너지가 넘치셨죠. 할머니들은 제게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오래 보아 온 동네 할머니 같으세요. 항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애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이 앞선 탓인데, 박재민이 만났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려운 마음이 조금은 사라졌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에서 활약하는 방송인 박재민은 올해 8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의열매 김연

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 박재민은 2014년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와 첫 인연을 맺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고, 2017년과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연이어 500만 원씩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왔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자긍심

이번 기부금은 박재민의 뜻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누적 기부 금액은 현재 3,500만 원에 이른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기부해왔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냐며 박재민은 부끄러운 듯 웃는다. 박재민의 증조부는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한다. 비록 독립유공자 서훈은 받지 못했지만, “너는 독립운동을 한 분의 자손이다”는 말을 들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자랐다고. 어려서부터 어르신들에게 스스로없이 다가가고 모시는 걸 좋아했다는 박재민에게

“ 처음엔 다가가기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직접 만나본 할머니들은 너무 귀여우셨어요. 재밌고, 좋은 에너지가 넘치셨죠.”



“ 나눔은 제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스스로의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나눔이란 결국 제 자신을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나눔은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른다. “전쟁이 나면 누구나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위험에 처하고 배고프고 고생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처럼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은 세계사적으로 정말 예외적이예요. 그런 전쟁의 피해를 직접 받은 분들이 심지어 살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박재민은 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짐작도 안 된다고 했다. 할머니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그저 “할머니 저 왔어!” 하며 자주 찾아뵙고 웃어드릴 뿐이다. 오래 알아온 사이처럼 말이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박재민은 좋든 좋지 않든 할머니 소식이 들려오면 만사 제쳐놓고 찾아간다. 언젠가 입원 중인 이옥선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때 이옥선 할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 잘못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바깥 공기 좀 쐬자며 모시고 나갔죠. 할머니께 ‘왜 이렇게 축 처져 계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아직 이렇게 창창하신데… 저랑 같이 놀고 그러시지 왜 포기하세요!’ 하면서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하지만 의외로 박재민은 자신의 이런 일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돕기, 기림 행사, 기부,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등등의 일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연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말이다. 관련 행사에 참석해 진행자로 재능 기부를 하더라도 단체 기념사진 찍는 데는 가급적 빠진다고. 박재민은 기림 행사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다. 이런 일을 돕는 자신을 기억할 게 아니라, 불과 100년 전의 일인데도 지워지고 흐릿해지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왜곡되고 지워지는 게 역사 같으면서 말이다. 누군가는 일본대

18월 26일 김연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민은 세 번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찬봉 사무총장과 나눔리더 인종패 기념 촬영. 박재민은 2017년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기부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셨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한 마디 한 마디 힘주어 말한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에요

박재민은 매년 설이면 나눔의 집을 찾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또 루게릭 환자 지원과 심장병 어린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선 농구 대회 참석, 그리고 연탄 봉사도 수년째 이어지며 나눔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박재민의 나눔 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많은 분이 박재민은 원래 선한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스스로 남보다 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예요. 저를 위해서지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스스로의 트레이닝이랄까요. 왜 남을 돕느냐고요? 확실한 건 제 자신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박재민은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눔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나눔 실천도 “철저하게 개인적 이유에서 시작하라”고 조언하며 해외 촬영 갔을 때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촬영이 끝나고 밤늦게 배가 고파 찾아간 피자 가게에선 조각 피자를 팔지 않았다. 그는 피자 한 판을 사서 한 조각을 먹고, 나머지는 피자 가게 앞에 있던 노숙자들에게 주었다. 노숙자들은 뜨끈한 피자를 반겼다.

“좋은 일 한다고 피자를 산 것도, 나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피자

한 조각만 먹고 싶었던 저도, 배가 고프 노숙자도 말이에요. 연탄 봉사도 그래요. 지금까지 50~60번은 했거든요. 주변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도 해요. 그럼 저는 ‘운동도 되고 좋지 뭐!’ 하고 말아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진짜 운동도 되고 말이에요!(웃음)”

애써 특별한 일이 아닌 듯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자니 진짜 특별한 그의 마음이 더 크게 전해졌다. 박재민 스스로를 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므로! ❀





弘益人間
弘益萬物

초허당후원기금 일꾼 권오춘 아너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의 것이죠”

초허당 권오춘 선생은 4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나눔을 전해왔지만, 노고에 비해 그의 이름은 덜 알려졌다.

나눔으로 인한 유명함이나 명예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그의 나눔 철학 때문이다.

외부에선 ‘문화 예술계의 대부’라 이르지만, 스스로를 ‘일꾼’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그였다.

받는 사람을 배려하며 나누는 것

권오춘 선생은 지난 8월 7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터(이하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너 가입으로만 보자면 이제 막 두 달 차에 접어든 ‘신입’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나눔은 떼려야 뗄 수 없다. 1980년 가난한 예술가를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한 나눔은 현재 누적 기부금이 115억 원에 상당할 정도로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해왔다. 기부금 대부분은 가난한 예술가와 예술의전당 후원금, 모교 후배를 위한 장학금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내주었다. 그랬기에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은 의외의 행보로 비쳤다. “3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유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산 것은 없는지 삶을 돌아보게 됐지요. 어려운 예술가나 학생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왔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연말에 이웃 돕기 성금을 내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터를 알게 되었다. 가입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저축했고, 마침내 목표한 1억을 달성한 후 바로 아너 가입을 추진했다.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 소감을 묻자, 권 선생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들려주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후원할 때였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그 어르신 집에 들르게 되었

다. 권 선생이 집 곳곳을 살펴보고, 어르신의 근황을 묻던 중이었다. 어르신은 권 선생에게 덤덤히 물어보았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가면 선생님의 기분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말이다. 권 선생은 “어르신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 마음인들 편할까요?”라고 답하자, 어르신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이런 선생님도 계시지. 암 그림” 하며 읊조리듯 말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받는 건 쉬워요. 오히려 주는 게 어렵지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기회와 돈을 주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까지 줘야 하죠.”

권 선생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많은 예술가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했다. 가난하지만 순수한 그들을 후원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예술가 중에는 훗날 날아 훌륭한 작가 또는 교수가 되었는가 하면, 일부는 권 선생의 등지에 주저앉아버렸다.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결국 그는 3년 전부터 개인 후원을 그만두었다.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을 알아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아너 가입식 날 권오춘 선생은 사랑의열매 직원들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낀 후, 나눔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또 전문화된 시스템에 맡기면 그동안 자신이 했던 고민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너 가입을 잘했다고 덧붙였다.



기회를 나눠주는 '손수저 출신'

권오춘 선생의 나눔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도 아니고, 기부 금액이 많기 때문도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누는 사람이다. 2005년 그의 제안으로 선보인 전통 연극 <아가멤논>은 모든 배역을 오디션으로 뽑아 당시 신인 배우들이 큰 무대에 서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성악가들이 고국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출연하는 무대를 제안하며 예술의전당에 후원을 했다. 또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기회장학금을 주고 있다. 기회장학금 조건은 성적순이 아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지방 출신이며, 이공계에 재학 중이되 D학점 이상의 성적이면 된다. 이들은 서울에 사는 학생에 비해 또 이른바 취업이 보장된 과에 비해 여러모로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요즘 수저 출신론이라며 금수저, 흙수저를 말하는데 저는 흙수저조차 없어서 손으로 먹어야 하는 손수저 출신이

라고 말해요. 여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전쟁 때 큰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지요. 고학으로 간신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기회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언젠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기왕이면 좀 더 많이 갖고 태어나는 금수저 출신이고 싶을 터. 하지만 권 선생은 손수저 출신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설명한다. 마땅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험·체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권 선생의 손수저 출신론이다.

“금수저 중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가 많아요. 이 세상에 온전한 내 것은 없어요. 자수성가한 기업체 대표들에게 강연할 때도 돈 버는 기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받는 건 쉬워요. 오히려 주는 게 어렵지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기회와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까지 줘야 하죠.”

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인생 전체로 보자면 90%는 실패했다고 말해요. 자기 것이라고 주인 행세만 했지 사회와 이웃,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하여

권오춘 선생이 어릴 때 일이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어머니는 어린 그에게 탐스럽게 열린 감을 따라고 하셨다. 감을 따면서 속으론 어머니가 하나쯤은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좋은 건 우리 집에 오는 귀한 손님에게 드려야 한다며 먹음직스러운 감을 처마에 매달아 꽃감으로 만들었고, 그의 손에는 바닥에 떨어져 깨진 감을 쥐여주었다. 어느 날 방물장수 아줌마가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귀한 꽃감을 내드리는 게 아닌가! 심지어 식구들에게 주라고 남은 것을 싸주기까지 하셨다. 어린 그는 방물장수 아줌마가 귀한 손님이나며 왜 감을 주냐고 어머니께 화를 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시더니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어린 아들 앞에 서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다.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저보고 어머니 종아리를 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죠. 어머니께서 ‘내 배고플 때 남 배고픈 걸 생각 못 하든 사람 아니야. 니 버리지(벌레)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걸 느껴요.”

200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 나 아닌 것들을 위해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 것이라

밝혔다. 12년이 지난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겠노라고 말이다. 그에게 부끄러운 삶이란 내 것이 남아 있는 삶이라 했다. 권 선생은 자신의 재산은 앞으로 만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라고 자식들에게도 못 박았다. 그리고 본인이 살면서 경험하고 체득한 지혜를 모아 ‘인간탐구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현재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강연을 통해 지혜까지 나누며 곳곳에 나눔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 이제는 온전한 자신의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심지어 사후 시신 기증까지 약속한 상태니 그의 육체조차 그의 것이 아닌 셈이다.

권오춘 선생의 자호는 초허당(草墟堂)이다. 언덕 위의 풀처럼 봐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으며, 이따금 동물이 풍오줌을 싸고 가더라도 웃으면서 일어서는 그런 잡초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담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든 아니든 스스로 맡은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권오춘 선생이 자신을 초허당후원기금 ‘일꾼’이라 말하는 이유다. ♣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촬영장에서 만난

멋진 카리스마의 배우 전해진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 독보적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전해진이 사랑의열매와 만났다. 재능 기부로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에 출연한 그녀는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에 임했다. 숨길 수 없는 그녀만의 카리스마를 뽐내면서 말이다.



지난달 초,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동네에서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촬영이 있었다. 9월이라고는 하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나던 날이었다. 그늘 하나 없는 좁은 골목길, 가파른 계단, 너른 대로변에서 진행한 촬영 현장 한가운데에 배우 전해진이 있었다. 카메라 밖 멀리서도 전해진 가슴에 달린 빨간 사랑의열매 배지가 눈에 들어왔다. 결코 쉬운 현장이 아니었음에도 전해진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았다.

제가 도움이 된다니 기뻐요

전혜진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의열매에 대해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고 했다. 하지만 가깝게는 우리 이웃을, 멀리는 해외의 누군가를 돕는 기관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다고. 그런데 이번 광고 촬영을 하면서 정확히 알게 되

- 1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스태프들
- 2,3 사랑의열매의 배분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캠페인 영상
- 4 광고 촬영에 함께한 출연자들
- 5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촬영





었다며 웃었다.

“먼저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기뻐요. 이런 뜻깊은 캠페인 광고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많은 현장이 있었지만, 가장 뜻깊은 현장이었다고 할까요.”

요즘 가장 핫한 배우를 꼽으라면 전해진이 아닐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 극중 송가경 역을 맡아 멋진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팬들은 “전해진이라 쓰고 송가경이라 부른다”라고 하며 그녀의 연기를 극찬했다.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에서도 “10원 한 장 틀린 거 없다 이거지?”라며 걸크러시 넘치는 대사를 날리는 전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잘 모아서 잘 나눈다!

연중 광고의 모토는 ‘잘 모아서 잘 나눈다. 모두 돕다’이다. 광고에서 전해진은 “얘들아! 싹 다 나눠드려”라고 지시한다. 그녀만의 시원한 연기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해진은 이번 광고 촬영을 계기로 사랑의열매에 가입해 후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경로당에서 동요를 부른 짧은 기억, 대학 시절 장애인 기관에서 하루 봉사한 기억이 단편적으로 있지만, 사실 나눔을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사회 공헌이나 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몇 번 알아보기도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실천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게 어렵고, 기회가 되면 하겠단 말도 조금은 공허한 것 같아서...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 해요.”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속으론 계속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도움받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녀는 선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다시 카메라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갔다. 🍀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설명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지난해 사랑의열매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혁신을 위한 비전 2030을 선포했다. 빠르게 변하는 모금 시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한 새로운 시도다.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

지난 9월 17일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시작 전부터 사업 설명회를 찾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해 사업 설명회 시작에 임박해서는 의자를 더 내왔을 정도였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할 팀을 모집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가 토크쇼 형식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방대욱 대표는 사랑의열매가 이런 혁신적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사랑의열매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고민했어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고 봤어요.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혁신사업팀을 구성하고, 비영리스타트업 관련 사업을 기획해



사업 설명회를 찾은 많은 참석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와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처음으로 이번 인큐베이팅 사업을 선보이게 됐어요.”(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비영리스타트업이란 ‘비영리’ 조직처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스타트업’처럼 차별화한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율적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적어 상당수가 초기 3년을 버텨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 생태계가 정체되어 있고,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객체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비영리스타트업이 필요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데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의 생각이 일치했다.

“가장 멋있는 사회문제 해결법은 비영리 조직에서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소셜 벤처 지원 프로그램마저 자본 친화적 접근이 주목받고, 사회적 가치보다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에선 사회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비영리 조직밖에 없어요. 비영리 조직이 많아지고 건강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를 세워가려 합니다.”(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비영리 조직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지원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기본 방향은 비영리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 또 검증되지 않은 조직·프로젝트도 지원하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지원 이후 후속 지원 연계, 지속 가능성 강화를 고민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



고 있다. 대표자 포함 총 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며, 설립 후 3년 미만의 비영리 조직은 물론 미설립팀도 사업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거나 차별화한 솔루션에 도전하는 팀, 열린 사고를 지닌 팀, 팀의 장기적 비전을 고민하는 팀, 그리고 비영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팀이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

선정된 팀은 6개월간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을 포함해 팀당 약 3,000만 원의 사업 지원비를 지원한다. 선정 팀 간 교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해 서울 소재 공유 사무실을 제공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4주 역량 강화 교육, 월 2회 전담 멘토와 일대일 개별 코칭하며 비영리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육성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그동안 얻은 성과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후속 지원 연계 기회를 마련해준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듯 단번에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12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비영리 조직에 작지만 큰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이 함께 시도하는 혁신적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건투를 빈다. ❀



새로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청춘 찾기 프로젝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쌤님과 함께하는 '청춘사진관'

유튜버 최초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가 된 뷰티 크리에이터 쌤님이 어르신들의 청춘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 메이크업 전문가 쌤님의 재능 기부로 문을 연 청춘사진관에는 과연 어떤 모습들이 찍혀 있을까.

지난 9월 1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씨님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통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던 중 유튜브버로서는 처음으로 홍보대사에 위촉된 것이다. 위촉식 현장에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큰 영향력을 지닌 유튜브 스타 씨님이 기부도 하시고 홍보대사로까지 나서주시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씨는 “저의 활동이 다른 분에게 기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며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또한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복지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노년층에 관심이 많다. 화장을 좋아하는 할머니도 많으시더라. 제 전문 분야인 만큼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 의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홍보대사 씨님의 첫 번째 활동은 9월 23일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청춘사진관’이었다. 노년층에게 꼭 맞는 메이크업을 통해 젊음을 찾아드리고 그 모습을 사



진으로 남기는 청춘사진관에 18명의 어르신이 참가했다. 안선영 사회복지사는 “행사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 만에 선착순 마감이었다”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고, 이번엔 사진도 찍어드린다고 하니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 씨는 행사에 함께한 메이크업학과 학생들에게 노년층 메이크업의 주의점을 알려 주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 메이크업 재료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행사에도 지친 기색 없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메이크업을 완성해나갔다. 거울을 보며 젊어진 모습에 신이 난 어르신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젊은 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씨는 “다들 좋아해주시니 무척 보람 있고 저 또한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씨님의 손길로 주름도 검버섯도 사라진 어르신들의 얼굴에 가득 담긴 미소는 청춘 그 자체였다. ❀



“이렇게 제대로 메이크업을 받은 건 처음인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젊어진 거 같아서 기분이 좋고 이런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도 남기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집에도 걸어들 생각이예요.”
-송정식(71)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외출할 때 화장하는 게 익숙해요. 특히 눈썹에 신경을 쓰는데 잘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이 잘 그려주셔서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기분 전환도 되고, 나도 아직 관참네 하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박동례(76)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머리 염색을 못 해서 흰머리가 오늘 화장이랑 안 어울릴까 봐 모자를 챙겨왔어요. 그런데 화장해서 얼굴이 예뻐지니 내 흰머리도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머리 색 때문에 더 멋있다고 하니까 오늘만큼은 제 흰머리도 마음에 드네요.” -홍봉순(74)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유산기부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앞줄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사랑의연매 예중석 회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일하 이사장, 웰다잉시민운동 차흥봉 이사장 등이 선포식에 참석해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촉구했다.

국내 유산기부 0.5%에 불과

세계 유산기부의 날인 9월 13일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을 선포한다. 올해는 추석 연휴로 앞당겨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사랑의연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총 30여개 관련 단체가

유산기부활성화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2009년 국내 전체 기부금 규모가 약 10조 원이었으나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에 불과했다. 2017년 국내 전체 기부금 규모가 약 12조 9,000억 원에 달했지만, 유산기부 비율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부 선진국의 유산기부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 모금액 9%, 영국은 33%를 차지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 선포식 날 발제에 나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김희정 사무총장은 기부 경험이 있는 50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해 작성한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3%였지만,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유산기부를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기부하며 의미 있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도 제도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범국민적·범정부적 유산기부 활성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국회와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선포식 직후 재산의 10% 이상을 유산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산기부의 법적 뒷받침, 특히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유산기부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도 참석해 “유산기부를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소개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 단계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도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사랑의열매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이 ‘한국 유산기부의 현황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발제했다. 우리나라 유산기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죽음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분위기, 혈연 중심의 유산상속, 유언장 작성 등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의 필요성 인식의 부족을 꼽았다.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민법의 유류분 제도 개선과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 ‘법 제도 개선 필요’, 범부 법인과 세무법인 등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확보’ 등 해결



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왜 우리는 생면부지 남에게 유산기부를 해야 할까?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은 “유산기부는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눔문화 확산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유산기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인 고액 기부나 생활 속 기부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라고 근원적 질문에 대해 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산기부를 통해 나눔 기관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기관의 역량과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유산기부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생소하던 2005년, 고 김춘희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와 옥탑방 전세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면서 유

산기부의 첫 사례가 되었다. ‘철도의인’ 김창량 할아버지, 흥계향 할머니가 뒤를 이었고, 신문 연재 시사만화가 고 김성환 화백은 고바우 영감 지적재산권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동참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귀한 유산은 현재의 우리를 거쳐 다음 세대로 전해지며, 사회를 한층 따뜻하게 만드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열심히 될 것을 약속했다. 🍀



2



3

- 1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내빈들
- 2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 3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세상의 편견에 예술 작품으로 답하다”

정신 재활 시설인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해온 인식 개선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과 사진, 칼럼 등을 매개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꾀한 것이다.

나눔과꿈



출사를 나간 사진 저널리스트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그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진행하는 동광임파워먼트센터의 ‘정신질환자 혐오사회 구조변화를 위한 온라인 기반 당사자 저널리스트 양성 사업’(이하 저널리스트 양성 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라 눈길을 끈다. 우선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확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기에 수혜자로서 수동적 역할에 그치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인식 개선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면서 더 큰 파급력을 지니게 됐다.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SNS의 반응을 보노라면 정신장애인은 모두가 난폭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정보로 가득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 소식을 접하기 때문이다.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이런 기존의 부정적 인



전시된 작품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모든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정신 건강 영역의 인식 개선 사업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미디어로 부정적 사고 전파 → 편견 형성 → 낙인찍기 →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위한 활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취업할 때 사회의 편견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다. 사실 정신 질환이 있다고 밝히는 경우 다른 핑계로 면접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정신 질환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

다 보니 결국 정신 질환을 숨기고 취업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깐 병력을 숨기면 취업은 금방 돼요. 그런데 병력을 숨기면 긴장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재발하게 되는 거죠. 정신장애인은 자의든 타의든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유라 사회복지사)

병력을 숨기고 취업하면 상황을 배려받지 못하고, 약 복용 시각을 놓치게 되어 결국에는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싫어하



참가자들과 가족이 함께하며 전시회 오픈을 축하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짐하며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 불편해하는 것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많지만 우리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라인 인식 개선 사업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참가자가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웹툰, 사진, 칼럼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장르를 정한 뒤 완성한 작품은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세상속으로 한 걸음 더 당당하게

저널리스트 양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참가자들의 자기표현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칼럼 활동을 하던 참가자는 교육 시간에 “이제는 당당해지기로 했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인식이 바뀌려면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야겠다는 자각을 한 것이다. 경험담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하니 다른 참가자들도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는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다. 자신을 푹푹 싸매던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아주 큰 변화이다.

시간이 지나 완성한 웹툰과 사진·칼럼 등을 카카오프러스 친구,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그렇게 작품과 댓글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걸음을 한 발짝



웹툰 저널리스트 참가자의 네 컷 만화



칼럼 저널리스트 참가자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며 수업을 듣고 있다.



웹툰 <별든가족>은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별을 품고 있는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씩 떼고 있다.

9월에는 그동안 발표한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정신 질환을 경험한 과정을 ‘왜 하필 나니?’,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견뎌냈니?’, ‘어떻게 받아들였니?’, ‘잘 살고 있니?’로 나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외침을 담아 전시했다. 서울 종로의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와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진행한 2회의 전시로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관람객과 마주할 수 있었다. 온라인 프로젝트였기에 관람객의 반응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보더니 ‘이런 곳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전시를 다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다. 안 좋게 생각한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유라 사회복지사)

작품으로 세상의 편견에 균열을 내는 이들은 정신장애인이 아닌 예술가다. ❀

INTERVIEW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시작돼요”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이두혁·김민서·안승연·김다솔·김유라 사회복지사

정신장애인이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취업 제한이 가장 큼니다. 저희 기관 고용지원팀에서도 취업 연계를 해주는데,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웹툰, 사진, 칼럼 저널리스트를 양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 워낙 견고하고 오래된 것이라 정신장애인이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경험과 증상 등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림이나 사진, 글 등을 이용해서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좋은 치유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려웠던 점은? 웹툰 작업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교육하고 습득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을 마스터하니 그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켜는 것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혼자 작업도 하고, 서로 물어보면서 도움을 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변화가 확연히 눈에 띌 정도입니다. 표현 능력도 좋아졌고, 스스로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나눔과꿈 사업 지원으로 전시회도 개최했는데, 전시회에서 일반 시민의 반응과 변화를 직접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정신 질환자들의 치유와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심리 안정 취업 캠프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3기 현장

“문화 예술로 즐겁게 취준하자!”

취준생의 심리 안정과 정서 지원을 위한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3기 캠프가 열렸다.
지치고 힘든 취업 준비에도 취준생들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던 현장을 소개한다.
취준동고동락 캠프에 참여한 모든 취준생에게 희망의 열매가 맺기를.



1 수업 후 완성된 그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2 그림 그리기에 앞서 긴장을 푸는 모습
3 인기 강사 김창욱의 강연 4 미술 심리 치료 와인&캔버스 수업 현장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GS칼텍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기획한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3기 취업 캠프가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열렸다.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직무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생에게 정서 치유의 기회와 실질적 취업 준비 노하우를 제공하는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은 GS칼텍스가 사랑의열매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GS칼텍스 CSR추진팀 박필규 팀장은 "취업 준비로 지친 취준생이 문화 예술로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캠프는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강연, 멘토링뿐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달래줄 문화 예술 힐링·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문화 예술로 하는 취준'이라



는 모토에 걸맞은 프로그램은 단연 '와인&캔버스'였다. 향기로운 와인으로 긴장감을 이완한 참가자들은 다양한 감정의 색을 캔버스에 칠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나를 형상화한 나무'를 그리는 붓끝에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서로의 응원을 주고받으며 완성한 나무는 뿌리가 깊고 꽃과 잎이 가득했다. 살래 표현예술심리치유

센터 김현진 센터장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부정적 감정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 박수영 매니저는 "참가자들에게 실패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곳에서의 경험이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에서 보여준 그들의 열정이 꽃으로 피어나 희망의 열매가 맺기를 기대한다. 🌸

INTERVIEW



"개인적 사정으로 늦은 나이에 처음 취업에 도전했어요. 초조함으로 우왕좌왕하던 차에 포스터를 보고 느낌이 왔죠. '아,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취업 스킬이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희준(29)

"전 아직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참여할 결심을 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나누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도 얻었고요. 제 소신대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 김민하(23)



"나이 때문에 떠밀리듯 취직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불안함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감을 되찾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준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답게 도전하겠습니다!" - 김용진(29)



어디든 달려갑니다~ 사랑의열매 ‘찾아가는 회계지원단’

사랑의열매는 현장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복잡한 회계 업무로 고민하고 있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
사랑의열매와 ‘이든’이 만나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교육을 시작한다.

사랑의열매는 비전2030에 따라 현장과의 상호 신뢰를 기반한 배분 행정의 혁신을 과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간 사랑의열매가 배분현장의 행정능력 강화,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이바지 해온 것은 큰 성과이다. 하지만 행정관리에 부담을 호소하는 인력, 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에 있는 현장 파트너들과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변화의 주요한 방향은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 소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지방공공 현장의 파트너들

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만난 ‘이든’은 사랑의열매에게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었다.

사랑의열매와 이든의 만남

이든은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경력보유여성 세 명이 공동 창업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과 체계적 교육으로 자체 회계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사랑의열매는 같은 비전을 가진 ‘이든’을 만나 ‘찾아가는 회계지원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



게 되었다. 사랑의열매는 '이든'과 함께 모금회 사업의 행정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취약 기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영리

분야의 자정 능력과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사업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회계 정보를 챙겨주어 고맙다는 말이 많이 들었어요.” (김명숙 대표)

사랑의열매 찾아가는 회계지원단, 어떻게 활동하나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회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일대일로 설명해준다. 지출결의서 작성, 영수증 관리, 서류 검토 업무 등 세세한 회계업무를 설명한다. 특히, 사랑의열매의 배분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 교육을 신청한 분들의 궁금증에 대해 맥락에 맞는 정보와 함께 맞춤형 과외처럼 알기 쉽게 안내한다.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현장의 회계는 달라야 한다

사랑의열매 배분사업을 하는 기관은 투명성이 중요하지만, 비영리의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크기에 회계만 담당해줄 사람을 따로 구하기

가 쉽지 않다. 이럴 때도 이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세금신고 등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기관은 인력과 행정력 부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계전문가를 보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보 부족으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좋은 기획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회계에 곤란을 겪는 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 사랑의열매는 '이든'과 찾아가는 회계지원단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랑의열매, 그리고 끝없는 열정과 따뜻한 마음까지 겸비한 이든 김명숙 대표, 전연숙 이사, 장수정 이사 세 명의 찾아가는 회계지원단 활동을 기대한다. ♣

‘찾아가는 회계지원단’ 신청하세요

교육내용 모금회 사업의 회계 지침 및 실무처리

신청대상

- 2019년 현재 중앙회 지정기탁사업 수행 기관
- 지원금액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수행 기관
- 사업기간이 2019년 9월~12월 진행 중인 기관
- 그 외 지정기탁사업 수행 시 회계의 어려움이 있는 기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e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1 회계 관리 강의를 하는 김명숙 대표 2 전연숙 이사가 담당자에게 일대일로 회계 업무를 알려주고 있다.





경기도 이천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에서 진행한 착한일터 가입식 모습

이천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 착한일터 가입

빛나는 군인 정신으로 나눔도 끝까지!

태풍 피해 복구, 농번기 일손 돕기 등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은 아마 군인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이천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이하 청룡대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나눔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를 지키는 멋진 사나이들

여름의 절정을 이루던 지난 8월 6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천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에서 심재춘 대대장 및 장병 일동과 함께 착한일터 가입식을 진행했다. 착한일터란 직원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함께 기부하는 나눔 활동으로, 기업체나 시청 등 공공 기관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군부대에서 착한일터에 가입하는 건 그만큼 드문 일이다. 이로써 청룡대대는 경기도 이천 내 군부대 중 최초로 경기도 소재 육군 부대 중 두 번째로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이번 착한일터 가입은 청룡대에서 릴레이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청룡대대 정의진 소령의 가족이 함께 모은 저금통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희망저금통 7개를 전달했다. 이에 선한 영향력을 받은 청룡대대 60여 명 이상의 간부가 나눔에 동참하며 착한일터 가입까지 이루어졌다. 작은 나눔 씨앗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청룡대대의 남다른 분위기가 한몫했다. 신병들은 승가원 봉사 활동을 통해 군 생활의 첫걸음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작하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식목일에는 무궁화 100그루 심기 운동, 관내 청소년을 위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관내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등 평소에도 크고 작은 나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청룡대대 심재춘 대대장은 착한일터 가입식에서 “나눔이라는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역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하나 된 마음으로 많은 동료가 함께해주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부대 전역에 나눔문화의 탑을 쌓아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멋진 부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 사회 나눔까지 앞장서는 청룡대대 장병들이야말로 가슴 따뜻한 진짜 사나이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나눔까지 펼치면서 선한 영향력과 희망을 널리 전해주길 기대한다. 🌸

작은 씨앗에서 큰 사랑으로 꽃피운 청룡대대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를 소개합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1호

자녀와 함께 모은 저금통을 전달한 정의진 소령과 가족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일상 속에서 작으나마 기부를 실천해보며 스스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육군 동료들도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기부를 실천해보는 나눔릴레이에 동참해주길 기대합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2호

타부대 소속 남편도 함께 참여한 안수경 중사와 가족

“자녀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금을 하고 기부까지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육군 동료들과 뜻을 모아 나눔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3호

외식 비용 아껴 기부를 실천한 심재춘 대대장 가족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도 있어 외식 비용을 아껴 아이들과 함께 기부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가족과 삶에 의미 있는 추억 하나를 더한 것 같아 기쁩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4호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과 뜻 모은 김항숙 중위와 소대원 일동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군인 정신을 살려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소소한 기부를 통해 군 생활의 보람을 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육군 동료가 나눔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5호

세 딸에게 기부하는 즐거움을 선물한 지석호 행정보급관과 가족

“얼마 전 부대가 착한일터에 가입했고, 동료들이 가족과 함께 저금통 기부를 이어가는 모습이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딸들에게 '기부'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6호

정든 부대의 전출을 앞두고 기부를 실천한 서중관 작전교육장교

“청룡대대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 부대에 있을 때 착한일터 가입과 나눔을 체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부대를 옮겨도 나눔 활동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 7호

생일 기념으로 가족과 나눔을 실천한 정영수 행정보급관

“생일을 맞아 가족과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성취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부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에 많은 동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유명 외화 번역가 이미도(이름만 듣고 여자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는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다). 그가 번역한 수많은 외화의 대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영화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1997)의 “너의 잘못이 아니다(It's not your fault)”이다.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던 수학 천재 윌 헌팅에게 상담 교수 손(로빈 윌리엄스)이 한 말이다. 상담을 거부하던 윌 헌팅은 이 말 한마디에 손의 어깨에 매달려 짐승 울음소리에 가까운 오열을 터뜨리며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코칭 심리 전문가 김윤나의 <당신을 믿어요>(카시오페아)에서도 이 말이 자주 등장한다. 결혼을 앞둔 30대 남자 B는 어

딘지 모르게 어두운 얼굴이다. 행복과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에 그의 마음은 어둡고 불편하기만 하다. 어릴 때 술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계를 위해 호프집과 포장마차 이른바 ‘술집’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어머니, 어디서 술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움츠러들던 사춘기 시절. 상처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에게 저자가 들려준 한마디.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과거와 타인이 아닌 지금의 나
작가는 신혼 초 남편이 크게 아팠던 기억을 풀어놓았다. 웬만

하면 감기조차 안 걸리는 남편이 걸근까지 하며 드러누웠을 때 작가는 안쓰러움보다 짜증을 느꼈다. 왜 짜증이 난 걸까? 작가는 어릴 적 자신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거나 좀 으며냐고 머리를 쓰다듬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여보, 나 어떻게 보살피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훌쩍거리고 말았다.

작가 김윤나는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낸다. 일곱 살에 엄마에게 버림받았고, 알코올중독에 걸린 아버지 아래서 치열하게 성장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그 모든 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마음속 말을 반복해서 띄워 보낸다. 그는 이제 부모와 다른 삶을 살며 단란한 가족을 꾸렸고, 이혼 계획도 없으며, 보람 있는 직업과 취미까지 즐기고 있다. 그렇기에 과거의 상처를 다시 반복할 일은 없다.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삶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가치 있는 도전 중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에 있게 한 씨앗이 언제 뿌려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씨앗을 바꾸어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씨앗은 새롭게 바꾸어 심을 수 있다.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많은 사람이 부모가 겪은 비슷한 고통을 물려받고 스스로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이유는 한번 싹 틔운 씨앗에게는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거두며 충분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과거의 그때 그 일과 타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이다.

빨간 떡볶이 국물이 알려준 것

사람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떡볶이를 먹는 분식집 안. 하얀 옷을 입고 앉은 작가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빨간 떡볶이 국물을 옷에 묻히고 말았다. 별칭게 남은 자국이 영 짜증이 나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국을 바라보는 사이 떡볶이는동이 나버렸다. 그때 한 선배가 말했다.

“너는 좀 전까지 참 행복해 보였는데, 떡볶이 국물이 너를 완전 망친 것처럼 보인다.”

아주 시시한 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사건에서 작가는 예전의 작은 실수나 실패로 미래를 망치곤 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1교시 국어 시험을 망쳐서 그다음 수학 시험까지 영향을 받는 다든가 했던 것 말이다. 작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은 그냥 두고 그다음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가 미래를 망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어. 그것이 나의 하루보다, 인생보다 중요하지 몰아야겠어.”

그래서, 월 헌팅은 어떻게 되었을까?

월 헌팅은 본인이 청소를 하던 하버드 대학교의 스카일라(미니 드라이버)를 사랑하면서도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마음을 열었다가 거부당도 당하면 감당할 힘이 없는 그다. 결국 여자 친구를 떠나보내고 말지만, 손 교수의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스스로의 상처를 대면하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용서의 시작은 타인이지만 완성은 자신이다. 과거의 상처

에 억눌려 오랜 세월 깊숙한 내면 속에 자신을 감금시키고, 기회를 빼앗고, 타인들에게서 소외시킨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다. 고통을 고통스럽게 마주한 채 자신을 뜨겁게 용서한 월 헌팅은 그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스카일라를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각본을 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할리우드에 데뷔했다. 두 사람처럼 아카데미상을 받을 일은 없다 해도 마음을 옥죄는 과거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지구상 어디서나 나 자신을 변쩍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 나의 잘못이 아니다.” ❀



꿈꾸는 백설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유쾌한 칼럼니스트.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어 한다. 일간지와 관공서 등에서 일했다.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올해에도 아낌없이 주는 감~

가을의 전령이 하나들 얼굴을 내민다. 그중에서도 내 마음의 상사화(相思花)같이 달콤한 풍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를 아닌 감이다. 감나무 옆의 감나무 집에서는 크고 작은 감이 저마다 매달려 가을 색을 돌운다. 감이 풍년이면 화폭 안으로도 뛰어들어 옛 선비들의 병풍과 민화(책거리)에 담기곤 했다. 감이 좋은 기운(氣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위를 보낸 감나무의 감은 음악이고, 시(詩)이며, 영양제다.



감, 어떻게 먹어도 좋은 감?

“감, 냉동실에 가득 채워놨지?” 시골에서 감을 잔뜩 가져 오신 아버지는 날개 포장해 내게 보내주셨다. 아버지는 감을 천연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른다. “시골 감은 농약도 안 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이야, 파는 감들은 이 맛을 따라올 수

없으니 쟁여놓고 먹어라!” 하루에 한 개씩 꺼내 먹으면 몸에도 좋고 정말 꿀맛이라 하셨다. 할아버지의 시골집에는 감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껍질을 돌려 깎아 꽃감을 만들 만큼 부지런한 식구가 없어서 우리 집은 무조건 냉동 보관했다. 그래도 감이 남으면 향아리를 소독해 감식초를 담그기



도 했다. 감이 지닌 단맛은 독보적이기에 양념부터 소스, 김치, 반찬과 샐러드, 메인 요리에까지 다양하게 이용한다. 이처럼 감의 인기가 높은 것은 감의 영양 성분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같은 대표적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암, 당뇨, 심장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대표적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C의 원천이고, 식이 섬유 또한 풍부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비타민 A도 뛰어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감은 취향대로 먹지만 수없이 많은 감의 품종을 죄다 알 수 없기에 너무 입에 뚝은 감은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간혹 어르신들이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고 하는데, 감에 들어 있는 수용성 탄닌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감은 종류와 숙성도에 따라 뚝은맛의 정도가 차이난다. 탈삽이라는 과정을 통해 단감의 탄닌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 뚝은 감도 다디단 단감(연시)으로 변화시켜 판매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맛

단감은 주로 기온이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 많이 재배한다. 태추·부유·조생·신미 단감들이 주 품종을 이루고, 어린아이 머리만 한 대봉시는 영동, 상주, 김천에서 주로 재배한다. 그 외에 청도반시(淸道盤柿)가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에서 생산하는 씨 없는 감이다. 청도반시는 씨가 없고 모양이 쟁반처럼 납작해 반시라고 부른다. 이 신기한 감의 비밀은 후에 품종의 문제로 밝혀졌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 전체의 감나무가 수컷 없이 모두 암컷만 있어서 열매를 맺

어도 씨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

감은 장수하는 나무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종류도 많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저마다 감의 효능과 맛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왔다. 수정과와 석탄병(惜呑餅) 등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곁에 그 품위를 지키고 있지만, 감 자체를 약으로 보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낸 중국이나 여러 가지 절임과 무침, 발효와 숙성을 통해 감의 섬세한 맛을 다양하게 이끌어낸 미국 제품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다. 이제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단순히 감을 내다 파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더 좋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전문 인력과 협의회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아낌없이 주는 감나무의 풍부한 맛이 있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찬한 <이담속찬(耳談續纂)>이라는 속담집에 “타인지연 왈리왈시(他人之宴曰梨曰柿)란 말이 나온다. 말 그대로 남의 잔치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라는 뜻이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립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함부로 말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실리(失離)만 따지며 각박한 요즘의 삶엔 여백이 없다. 나는 마당에 주렁 주렁 풍성히 열매 맺은 감나무를 보며 배움을 얻는다. 올해는 좀 더 감 맛을 즐겨볼까 하며 느긋하게 마음도 먹어본다. 비록 감나무가 흔한 나무이고, 열매가 많아 버리는 것이 많다 해도 다 쓰기 나름이다. 감나무는 평생 열매로 1만 개 가까이 내준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먹는 것 같아도, 버리고 새로 사 먹는 것이 더 많다. 이번 가을은 모두의 마음속에 감나무 한 그루씩 자라는 계절이 되길 바란다. 서로 나누지 못하고 돕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정신우 셰프는 국내 1호 남성 푸드 스타일리스트, 오너 셰프 레스토랑 운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현재 플레이트 키친 스튜디오의 대표로 요리 강사와 멘토로 활약 중이다. 2014년 홍선암을 선고받았으나 환자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최근 저서로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365 샐러드> 등이 있다.

건조한 가을 피부에 촉촉함을~

전문가가 말하는 홈 케어 노하우

코끝에 스치는 쌀쌀한 바람을 느끼기도 전에 피부 땅김만으로도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가을은 피부의 건조함을 느끼는 시기다. 집에서 촉촉한 가을 피부로 가꾸는 법은 없을까? 천연 화장품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에게 속까지 짝 채워주는 촉촉한 홈 케어 피부 팁을 들어보았다.



PART 1

건강한 자연 재료로 만드는 수분 가득한 천연 팩

어느 화장품의 유명한 광고 문구처럼 가끔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을에 하면 좋은 천연 팩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천연 팩은 매일 사용하기보다 일주일에 2회 하기를 권한다.

맑고 고운 어린 피부를 위하여 검은콩 팩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 여기에 꿀과 우유를 더하면 금상첨화. 꿀은 기미와 건조한 피부에 쌓인 각질을 제거해주고 보습 효과를 높여준다. 우유는 하얗고 고운 피부를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드는 법 검은콩 분말: 꿀: 우유를 각각 3:2:1 비율로 섞는다.



트리플 가득한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양배추 팩

양배추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좋은 카로티노이드 성분, 피지를 조절해 피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유황 성분, 피부 톤을 화사하게 가꿔주는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한다. 트리플 피부나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를 가꾸고 싶다면 양배추가 제격이다. 여기에 꿀과 플레인 요구르트를 더한다. 플레인 요구르트의 비타민 B₂, 단백질 성분이 생기가 있는 피부로 가꿔주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준다.

만드는 법 양배추 분말: 꿀: 플레인 요구르트를 각각 3:1:2 비율로 섞는다.

- 마트 등에서 양배추 분말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집에 양배추가 있다면 빵아서 만든 즙을 활용해도 좋다. 단 분말을 사용할 때보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더 넣어 걸쭉한 점도로 만들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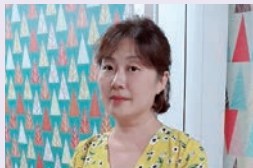


피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면 귤 팩

상큼한 향을 맡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귤에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기미, 주근깨, 주름 같은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특히 귤껍질은 체내 콜라겐 파괴를 방지해주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더해주는 꿀과 플레인 요구르트를 첨가하면 좋다.

만드는 법 귤껍질 분말: 꿀: 플레인 요구르트를 각각 3:1:2 비율로 섞는다.

- 마트 등에서 귤껍질을 구매할 수 있으나 귤을 먹은 후 버리는 껍질을 사용해도 된다. 귤껍질을 햇빛에 말려 건조시킨 후 믹서에 갈아 곱게 만들면 팩으로 활용 가능하다.



청정 지역 제주도의 자연을 공부하는 천연 화장품 전문가 김현정코스메틱 김현정 대표

김현정 대표는 맑고 깨끗한 제주에서 나는 재료와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긋한 향에 매료되어 공부하다가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을 생산하는 코스메틱 대표가 되었다. 고객에게 자연이 주는 향기와 깨끗함,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노하우가 집약된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보인다. 2016년 2월부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해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돕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피부 타입별로 살펴보는 보습 TIP

같은 온습도라고 해도 피부 타입이 다른 이상 관리법까지 같을 수는 없다. 겨울까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피부 타입별로 제대로 보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피부 타입에 따라 보습제 선택이 달라지는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이면서 민감한 경우도 있지만, 지성·복합성 피부 중 민감성인 경우가 더 많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향, 무색인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지성·복합성 피부면서 민감하다면 가벼운 로션 타입을 덧바르고, 건성 피부면서 민감한 경우엔 묵직한 제형의 크림이나 연고 타입의 보습제를 바른다.



충분한 양을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 건성 피부

보습제를 사용해도 건조함을 느낀다면 바르는 양이 원인일 수 있다. 손에 한 번 덜어서 바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충분한 보습을 하기엔 부족하다. 한 번 펴핑하거나 튜브를 짤 때 나오는 양(약 20~30CC)은 팔 한쪽을 바르는 데 적당하다.

보습제 선택 TIP • 많이 건조하다면 묽은 로션 타입보다는 크림이나 연고 타입을 선택한다. •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한다. 만약 건조도가 심하면 피부과에서 파는 아토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길 권한다. • 연세가 있는 분은 피부에 지질 성분 중 콜레스테롤이 부족해 가려움증이 심한 것이다. 이런 경우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

피부 장벽은 약하고, 피부 민감도는 높은 지성·복합성 피부

지성·복합성 피부는 피부 민감도가 높다. 많은 사람이 건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피부 장벽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성·복합성 피부 장벽이 약하고 피지 분비로 피지선과 관련한 염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이 강하고 색이 짙은 보습제를 오래 바르면 화학 성분에 자극받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보습제 선택 TIP • 무향, 무색인 보습제를 선택한다. • 부드러운 로션 타입을 선택하되, 유존 부위가 건조하면 보습제를 덧바른다. • 여러 종류의 보습제를 한꺼번에 바르거나 에센스, 수분 크림 등 여러 제품을 반복적으로 덧바르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습제 하나만 선택해 여러 번 덧바른다.

피부 보습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보습제를 아무리 잘 발라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피부 보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가을·겨울에도 촉촉한 피부를 위해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다.

1 피부 장벽이 가장 많이 열려 있을 때가 세안이나 샤워를 한 직후다. 이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기를 닦아낸 후 바로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실내 환경이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맞춘다. 피부가 민감한 경우엔 알레르기나 먼지 성분이 떠다닐 가능성이 있는 초음파 가습기보다 자연 기화식 가습기를 사용한다.

3 유난히 건조한 날은 피부에 미스트를 뿌린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 미스트를 뿌린 후 보습력이 높은 보습제를 발라주면 막이 형성되어 촉촉함이 유지된다. 추운 곳에 나가기 전, 난방기를 틀기 전 등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한다.

4 피부가 푸석푸석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각질 제거를 하면 오히려 피부 손상도가 심해진다. 각질 제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함유된 부드러운 클렌징 제품으로 세안한 후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5 보습제를 꼼꼼히 바른다면 굳이 1일 1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팩을 붙였다 떼 후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건조해진다. 팩을 떼고 나면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도록 한다.



이런 경우엔 꼭 병원에 가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대표적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가려움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긁어서 피부 생채기가 생겼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한다. 만약 긁으면서 피부를 방치할 경우에는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는 만성 태선이 생길 수 있다. 또 피부에 생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 문제를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 가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생채기가 생겼다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확한 진료와 치료

연세리엔피부과 이세원 원장 연세리엔피부과는 2008년 서울 영등포에 개원한 이후 쪽 한자리에서 진료해오며 환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피부 질환, 노화 치료, 모발,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대한탈모치료학회와 대한피부항노화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양대학교 의료원 외래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과잉 진료비 등 불법적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며 건전한 의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랑의열매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학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중앙회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사랑의열매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 OK저축은행 탁용원 이사, 밀알복지재단 장량 사무처장이 임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OK저축은행, 연중 사회 공헌 성금 2억 원 기부

OK저축은행(대표이사 정길호)은 사회 공헌 성금 2억 76만 5,180원을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에 전달했다. 3일 오후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송향숙)에서 진행한 성금 전달식에는 OK저축은행 탁용원 이사, 밀알복지재단(대표 홍정길), 장량 사무처장, 사랑의열매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OK저축은행의 연중 사회 공헌 성금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 가구에 생필품과 필요 물품을 지원한다. 또 OK저축은행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추석 명절 선물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OK저축은행은 3일부터 서울·부

산·인천·경기·대전·등 총 5개 지역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활 지원을 돕는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과 지점별로 인도네시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랜턴 지원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OK저축은행은 지난 6월 19일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업무 협약에 따라 취약 계층 생활 지원을 위한 임직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OK저축은행 탁용원 이사는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故 최우석 전 중앙일보 주필 자녀의 유산기부

지난 23일故 최우석(전 중앙일보 주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의 자녀가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 상속받은 주식을 가족(아버지, 아들, 딸)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주식을 매도한 기부 총액은 10억 5,400여만 원으로 한국형기부자맞춤기금 전국 5호로 등재됐다. 기부금은 최 씨 남매의 뜻을 따라 '구산기금'으로 명명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과 장학사업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강서구 지역 주민과 함께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 진행

서울 사랑의열매는 추석맞이 서울 시내 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쪽방 상담소 총 136개소 2만 7,750명의 소외 계층에 4만 2,2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명절 행사비 및 명절 선물과 생계비 등으로 사용했다. 추석을 앞둔 4일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은 “지역 곳곳에 소외된 분들 없이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사랑의열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부산문화재단, 지역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부산 사랑의열매와 (재)부산문화재단은 부산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강화하고 문화 예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에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협약의 일환인 '달리는 부산문화'를 통해 이동식 차량 공연과 악기 나눔, 임직원 봉사 활동을 통해 경제·문화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W아너, 추석맞이 '희망 상자만들기' 봉사활동

부산W아너 소사이어티(회장 이정화, 보명피안티 대표이사)는 추석을 맞아 '부산W아너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산W아너들은 참기름, 라면, 세제 등 생필품 19개 품목 22개 물품과 W아너 회원들의 편지를 담은 '희망 상자' 50박스를 만들었다. 희망 상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다. 부산W아너 이정화 대표는 “작은 생필품 세트지만 물품을 받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 지역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간담회

8월 28일 대전 사랑의열매는 대전 지역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화종합연구소의 '함께 멀리', 롯데케미칼(주) 연구소의 '케미가 넘치는 나눔과 상생' 등 다양한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또 사랑의열매 신규 사업인 '나눔 명문기업'과 다가올 희망 2020 나눔캠페인 등 나눔 실천 방안을 공유하며 하반기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1억 9,000만 원 지원

대전 사랑의열매는 9월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2019년 추석 명절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1억 9,000만 원의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중 1억 7,000여만 원은 관내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4,000여 가구에 지원했다. 또 2,000여만 원은 쪽방 주민 및 다문화 가족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명절 행사비와 급식비, 공동 차례상 비용 등으로 지원했다.

SK하이닉스, 행복 장학 성금 1억 6,000만 원 기탁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 장학' 성금 1억 6,0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이천시에 전달했다. 행복 장학은 SK하이닉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조성한 '행복 나눔 기금'으로 마련했다. 성금은 이천 지역 46개 취약 계층 청소년 433명에게 전달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이천·청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데, 작년까지 총 31억 원의 성금을 약 7,000여 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KSD나눔재단 공모 사업 선정 기관 후원금 전달식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병래)은 '2019년 KSD나눔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된 복지 기관 및 단체 4개 기관에 후원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4개 기관이 응모해 11: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4개 기관은 경기북부청 소년자립지원관, 정신 재활 시설 놀프름, 시흥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이다.

전북은행, 2019 일석이조 추석 나눔 사랑의 쌀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 사랑의열매에 '2019 일석이조 추석 나눔' 사랑의 쌀 2,400kg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쌀은 도내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사랑의열매를 통해서도 내 소외 계층에 전달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일석이조 나눔이다. 임용택 은행장은 "이번 나눔 행사가 지역 경제 및 소외 계층 이웃과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아베스틸(주), 군산시에 백미 8,000kg 기부

세아베스틸(주)이 추석을 맞아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짜리 800포를 기탁했다. 세아베스틸(주)은 사랑의열매, 군산시와 '행복 나눔 지역 복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기탁받은 백미는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군산 시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 송영환 지원본부장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 기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목포신항만주식회사, 저소득 세대 위한 장학금 전달

2019년 9월 3일 한라 목포신항만주식회사(대표이사 여종구)는 추석을 맞아 '운곡장학금' 1,5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고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의 호를 따서 만든 운곡장학금은 각 읍·면별 인구수와 저소득 가구 수에 비례해 선발한 저소득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씩 전달했다. 여종구 대표이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영광군 배분 지원금 전달식

지난 9월 10일 전남 사랑의열매는 영광군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배분금 전달식을 영광군청에서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전남 사랑의열매 허정 회장, 김준성 영광군수, 전남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배분금 11억 8,606만 원은 관내 의료 생계비, 의료비, 기획 사업(명절 지원), 야간 요보호 아동 지원,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7,000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기탁
 지난 9일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한가위를 앞두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의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 추석맞이 송편 빚기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탁받은 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울산 지역 내 소외 계층 1,400세대에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빚은 송편 300박스(박스당 2kg)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울산 지역 복지시설 44곳에 전달했다.



신수민 학생, 도서문화상품권 전달

신수민 학생은 지난 11일 35만 원 상당의 도서 문화상품권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8월 24일 열린 울주JC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강남교육장상을 수상해 받은 30만 원과 7월 18일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받은 상품 5만 원을 합하여 기부한 것. 신수민 학생은 6월에도 기부한 바 있으며 나눔을 다시 실천하리라는 다짐을 지켰다. 상품권은 연양초등학교 교내에 있는 '여럿이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주)우리텍, 소선나눔기금 장학금 2억 5,000만여 원 지원

지난 8월 8일 (주)우리텍(대표이사 임길포)은 경북대학교 글로벌 프라자에서 장학금 선정 대상 37명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선나눔기금' 2억 5,000여만 원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주)우리텍은 2017년 11월, 대구 사랑의열매에 10억 원을 기부하며 5년간 총 50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 대구 사랑의열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소선나눔기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추석맞이 소외된 이웃에게 6억 8,000만 원 지원

대구 사랑의열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고자 추석 전까지 이웃사랑 성금 총 6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성금은 저소득 주민, 쪽방 생활인, 노숙인 1만 3,700명과 대구내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금과 온누리 상품권 및 물품으로 전달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은 "소중한 성금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키트 등 6억 7,000만 원 상당 지원

지난 6일 경북 사랑의열매는 예천군노인복지관 2층에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품 포장 봉사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포장한 명절 키트는 4,000만 원 상당으로 찹쌀, 사골곰탕·육개장, 조미김 등 명절 음식, 생필품으로 구성된 행복 나눔 키트 600개였다. 명절 키트는 예천 지역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또 도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명절 지원금 6억 3,000만 원은 도내 9,000세대의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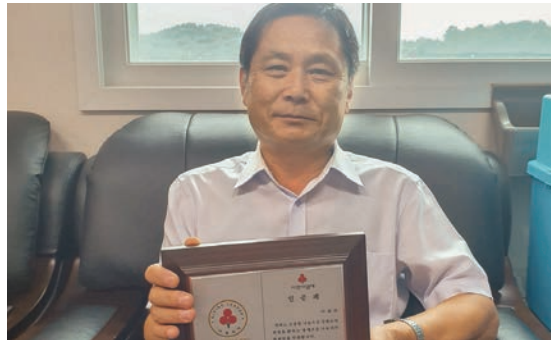


주광정밀(주) 대표이사 윤재호 아너, 대구·경북 최고액 기부 탄생

지난 10일 주광정밀(주) 대표이사 윤재호 경북 37호 아너는 5억 원을 추가 기부해 누적 기부액 11억 원으로 대구·경북 아너 회원 중 최고 금액을 기부하게 됐다. 전국에서는 열한 번째 기부액이다. 윤재호 아너는 자수성가하여 '흑연 전극 금형 가공술' 개발로 연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했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동해 추암횃집박태권 대표, 가전제품 지원

지난 3일 동해 추암횃집 대표이자 강원 아너 70호 박태권 대표가 동해시 북삼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규)를 찾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TV와 세탁기를 기탁했다. 박태권 대표는 지난 3월 강원 아너 70호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박태권 대표는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원테크 이재전 대표, 나눔리더 32호 가입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6일 전원테크 이재전 대표가 나눔리더 32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재전 대표는 1987년에 전원테크를 설립한 후 2013년에 흥천으로 회사를 이 전했다. 이후 2014년부터 강원 사랑의열매 착한기업에 가입해 매월 80만 원씩 기부하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이재전 대표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동참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바윗돌, 제주 나눔리더스클럽 2호 탄생

지난 9월 1일 바윗돌(회장 양상우)은 제주 사랑의열매 나눔실에서 나눔리더스클럽 2호로 가입했다. 바윗돌은 초등학교 친구 7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제주 아너 18호 회원인 삼성상사 양상우 대표와 친구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양상우 회장은 “바윗돌이 단순하게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이 아닌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제스코 마트 강동화 대표, 차량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전달

제스코 마트 강동화 대표는 지난 9월 6일 제스코 마트 본점에서 제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제주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받은 차량은 서부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상담, 방문 업무 등에 사용한다. 강동화 대표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창원우체국 임직원, 착한일터 가입

창원우체국(국장 곽재규) 임직원들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경남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착한일터 가입 우체국인 착한우체국은 평소에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왔다. 이번 가입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게 되었고, 모인 성금은 경남 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한다. 곽재규 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착한일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주) 3사랑회,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지원

현대로템(주) 3사랑회는 총 2,000만 원 상당의 환경 개선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금은 창원시 의창군 소재 5개 지역아동센터에 의자, 책상, 교체 등 센터의 환경 개선과 요리 교실, 원목 공예품 만들기 등 아동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사용한다. 특히 체험 활동에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 26개 봉사회 회원들이 도우미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후원은 현대로템 사내 봉사 단체인 3사랑회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

인천

인천소방본부, '119원의 기적' 착한일터 업무 협약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인천 사랑의열매와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119원의 기적 사업은 하루에 119원씩 적립해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마주친 안타까운 이웃을 지원하고자 기획한 자발적 프로젝트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현재 1,000명 이상의 인천 소방관이 동참했으며, 모금된 성금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지원한다.



인천 사랑의열매 차량 지원 전달식

지난 2일 인천 사랑의열매는 문학경기장 북문 광장에서 인천 사랑의열매 정명환 회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책무부시장,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 차량 지원 기관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차량 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7억 원 상당의 총 31대(경승용차 12대, 12인 승합차 19대) 차량은 예비 심사, 서류 심사,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한 31개 기관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현장의 욕구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획한 것이다.

광주

광주 아너 회원, 추석맞이 아동 생활 시설 위문 방문

9월 10일 광주 아너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동구에 위치한 무등음악원을 위문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과 9명의 아너 회원은 아이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일과 간식을 전달했다. 광주 아너 구제길 회장은 "아너 회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함께하는 추석을 만들어주신 아너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주)닷넷소프트, 저소득 학생 교통카드 지원

지난 8월 27일 (주)닷넷소프트(대표 최병준)는 저소득 학생 교통카드 지원금 2,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주)닷넷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판매와 솔루션을 컨설팅하는 IT 전문 기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해오고 있다. 최병준 대표는 "장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행복함 등·하곳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합모금 사업 협약 체결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지부장 윤종원)는 28일 음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충북 사랑의열매와 2019년 연합모금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는 충북 사랑의열매 연합모금 파트너 기관으로서 사랑의열매 브랜드를 활용해 올해 12월까지 모금 사업을 벌인다. 일정 목표액 이상 모금액을 달성할 경우 충북 사랑의열매에서 매칭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아스팔트아트, 범죄 예방 시설 기증

(주)아스팔트아트(대표 조웅진)는 500만 원 상당의 범죄 예방 시설물(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기증했다. (주)아스팔트아트는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 안심 귀갓길 물품을 설치할 장소를 조사한 결과 내수읍 일원으로 결정했다. 내수읍 일원에는 안심 안내판, 안심 비상벨, 안심 반사경 등 500만 원 상당의 일곱 가지 품목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유지와 보수는 청주시청의 협조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남을 빛낸 '나눔 천사' 유공자 포상식 개최

지난 19일 충남 사랑의열매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2019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나눔 실천에 앞장선 55명(충남도지사 표창 22개(개인 10명, 기관 7개, 우수 시군 5개), 충남도의회 의장 표창 5개(개인 4명, 기관 1개), 충남도교육감 표창 7개(개인 3명 학교 4개), 충남모금회장 표창 20개(모금 분야 15개, 배분 분야 5개))를 수여했다.



'추석 명절 사랑 나눔 지원 사업' 성금 6억 원 전달

충남 사랑의열매는 추석을 맞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3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도내 저소득 가정 1만 3,000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성금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에 차례상 차림 비용 등으로 지원했다. 충남도청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도민들께서 전해주시는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

현대L&C, 2억6,000만 원 상당 마루·장판·벽지세트 기탁

지난 19일 현대L&C(대표이사 유정석)는 세종시민체육관 광장에서 현대L&C 물품 배분 행사를 개최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2억 6,000만 원 상당의 벽지와 장판, 강마루와 강화마루로 5톤 트럭 12대 분량이다. 이 물품은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에 전달했다. 특히 지원 물품은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소외 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SK트리캠, 추석맞이 경로당 위문품 전달 및 봉사 활동

SK트리캠은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6개소 경로당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K트리캠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위문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SK트리캠 임직원은 노송리, 내판3리, 명학리, 응암리, 예양리, 송용리 6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견어물·과일·라면 등을 전달하고 환경 미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SK트리캠은 이날 6개 마을 경로당에 100여만 원 상당의 혈압 측정기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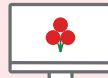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경북 106호



최종생 약사

“팔순을 기념해 그동안 함께한 포항 지역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준 지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보답하고자 합니다.”

경북 107호



임상홍 (주)영남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평소 저소득 아동·청소년 후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펼치는 선배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뜻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윤재호(경북37호) 회원님처럼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93호



故 손예신

“아내가 평소 나눔을 실천하던 정신을 기리고자 고인의 이름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경섭 지돈가 대표(故 손예신 님 남편)

충남 94호



유재덕 도물영농조합법인 대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항상 후원에 대한 마음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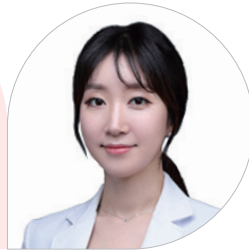
서울 268호



황상원 리드힐병원 대표원장

“진실된 사랑으로 건강과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리드하겠습니다.”

서울 269호



김선영 힐링안과 대표원장

“나눔은 나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며,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270호



정명진 명동우리치과 대표원장

“나눔은 평등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산 176호



손기찬 다대치과의원 대표원장

“사랑하고 선을 베풀자”

경기 215호



이용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상공회 회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광주 98호



박주한 박주한자산관리 대표

“옳은 일을 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의 가입이 나눔의 불씨가
되어 광주 지역에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이번 '마음 책방'은 작은 일에도 상처 받는 저를 위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형성된 유년 시절의 불안감 때문이었고, 그 해결책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네요. 나 자신을 따스한 보살핌으로 사랑·지지·격려해 내면의 힘을 강하게 키운 다음에야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매달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기사와 이야기들로 찾아오는 월간 〈사랑의열매〉를 기다리게 됩니다.

- 대구시 수성구 김은미

형편이 어려운 다른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돕는 일에 평생 헌신하신 차창규 이사장님의 고귀한 정신과 실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3·1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운동을 위해 몸 바치셨던 독립투사들의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은을 다시 되돌아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독립투사들의 희생으로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잊지 못할 고통을 준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피 흘리며 이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는 변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 변영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에서 훌륭한 선행을 하시는 미담 사례를 많이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구로구 최원주

'수전사 전문가 교육 사업'의 기사를 읽고 일회성 지원과 지속 가능한 도움의 차이점에 대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실무에서 직접 교육 효과를 체험하신 복지사 선생님께서 그동안 노숙인에게 단순노동직으로 주로 취업 알선을 했으나 취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라는 말씀과 이번 교육과정으로 배출된 노숙인이 전문가 위치로堂堂하게 직업 전선에 복귀해 노숙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성공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번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수전사 전문가 교육과정의 성공 사례를 발원으로 더욱 다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 교육 프로그램을 사랑의열매에서 꾸준히 개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한상윤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머그컵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코백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844,383,307,080원이나 되는 금액을

429만명에게!

잘 전달했다, 이거지!

사랑의열매는 2018년 한해 844,383,307,080원을
29,699개의 기관 지원과 466,981명의 개인 긴급 지원을
통해 총 492만 여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준, 총 492만여명 지원 추산]

사랑의열매니까,
잘 모아서
나눔다

인생 2막을 당당하고 즐겁게~

